

GGM 노조, 3년 파업 유보 거부... “집중교섭 제안”

“한 달간 평화 기간 두고 타결 도모하자... 노사가 상생하는 길로 나가길 바란다”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가 35만대 생산까지 파업을 유보하라는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와 갈등 조정·중재안을 거부하며 사측과 한 달 간 집중 교섭을 제안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이하 GGM노조)는 3일 광주 북구 민주노총 광주본부 사무실에서 GGM조정 중재안에 대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집중교섭을 제안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GGM노조는 “파업 유보의 목적이 생산 차질을 막는 것이라면 노사가 한 달간 평화 기간을 두고 집중교섭을 통해 조속한 타결을 도모할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제시한 ‘35만대 달성까지 파업 유보’에 대해서는 “오는 2027년까지 노동3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식물노조로 교섭하라는 뜻”이라며 “노동법을 무시하는 협상자와 협상이 진행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노조의 제안이 수용돼 GGM이 헌법가치와 노동3권을 인정하는 민주적 일터로서 노사가 상생하는 길로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전날 GGM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안을 마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이하 GGM노조)가 3일 광주 북구 민주노총 광주본부 사무실에서 GGM조정 중재안에 대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제공

노조와 경영진에 권고했다.

노조에는 35만대 생산목표 달성 때까지 파업을 유보하고 노사상생협의회의 역할 존중, 35만대 생산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2교대 근무 적극 협력을 제안했다.

경영진에는 노조·상생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하고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단체교섭 시 근로시간 면

제 범위 확대(4시간→8시간), 공급물량 확대(2교대 도입) 및 신규모델 도입 등 비전 제시,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를 제안했다.

이외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도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송현근 기자



전남자치경찰위원회, 교통환경개선공모사업 심사. 사진=전남도 제공

전남자치경찰위, 주민 참여로 맞춤형 교통환경 조성 10개 시·군 선정해 교통환경·횡단보도 시설 개선 추진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맞춤형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2025년 교통환경개선 공모사업 대상으로 10개 시·군을 선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은 지역공동체 참여 교통환경 개선사업과 빛으로 밝히는 안전한 횡단보도 만들기 사업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지역공동체 참여 교통환경 개선사업에는 광양시, 영광군, 무안군, 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보성군, 해남군 등 8개 시·군이 선정됐다. 노인보호구역(마을주민보호구역) 정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빛으로 밝히는 안전한 횡단보도 만

들기 사업에는 고흥군과 영암군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바닥형 LED 보행신호등, 보행자 감지장치, 경광등 등 스마트 안전시설을 설치해 야간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힘을 기울인다.

선정된 시·군에는 4월 중 보조금을 교부해 사업이 신속하게 착수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9억 원으로, 도비 3억6000만 원(40%)과 시·군비 5억4000만 원(60%)이 투입된다.

정순관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이 교통 안전 개선의 주체가 돼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도민이 실제 체감하는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미성년자에 음란물 촬영·공유 강요’ 채팅방 운영진 2심 감형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꾀어내 이를 공유하는 채팅방 운영진 2년 간 운영한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3일 201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배포 등) 교사 등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단기 3년을 선고받은 A(21)씨와 B(20)씨의 항소심 선고 재판을 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수법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 범행 당시 소년으로서 개전의 정(누우치는 마음가짐) 여지가 있고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정도도 보여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1심 선고 당시 형사 미성년자였던 점을 고려해 원심을 적권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B씨는 최근 2년간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모바일 채팅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촬영토록 교사(꾀어내거나 부추김)하거나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불법음란물 공유 대화방 참가자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가로채며 금전적 이득까지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은 “우리 사회가 ‘n번방’이나 ‘박사방’ 사건 등을 계기로 불법 촬영 또는

유포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 상당한 심각성과 함께 피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후 사회적으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실이 널리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A씨와 B군 역시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뚜렷하게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도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송현근 기자

‘순천 10대 여학생 문지마 살해’ 박대성 2심서도 사형 구형

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30)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3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기징역(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은 박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앞선 1심에 대해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불복했으며, 박씨 측도 심신미약·사실 오인·법리 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국민의 안전은 국가 기본 의무다. 10대 여학생이 길을 가다 영문도 모른 채 박씨의 범행으로 흉기에 찔려 억울하게 숨졌다. 국민들은 이 사건 뉴스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씨는 개인적인 사정과 감정을 해소하고자 이른바 ‘문지마

살해’를 저질렀다. 피해자 유족의 마음에서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판결해달라. 부디 사형을 선고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0시42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A양의 뒤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앞서 했다.

범행 이후 신발을 신지 않고 흉기를 소지한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 범행을 예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A양을 흉기로 찔른 이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2차 살해를 목적으로 홀로 노래방과 주점에 들어가 술을 시키거나 업주를 방으로 들어오라고 부르는 등 추가 범행까지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래방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범행 당일 오전 2시께 행인과의 시비를 벌이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 구속기소됐다. /오철수 기자

자신의 도박빚을 갚고자 민간임대주택 부지 내 보상 수용 대상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아시안게임(AG) 메달리스트 출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전 직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6일 204호 법정에서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LH공사 전 직원 A(43)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수용 늦춰줄게” 뇌물 요구, AG 금 판 LH 전 직원 징역형 구형

검사는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2월 LH공사가 전북 익산시 공공지일 민간임대주택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지 내 수용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골프연습장 사업자에게 강제집행 지원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400만 원을 요

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LH공사 전북본부에서 수용 관련 보상 업무 담당자로 일하며 골프장 사업자와의 수용 방식과 보상금 등 문제로 빚어진 분쟁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다.

검사는 A씨가 도박 빚 독촉에 시달리다 골프장 사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했다고 보

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LH 소속 레슬링 실업팀에서 활동하며 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에서 2차례 금메달과 은메달을 땀으며 은퇴 후 LH공사에 취업한 뒤 이번 뇌물 비위에 휘말려 해임 처리됐다. A씨는 자신의 해임 징계가 부당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 측은 거듭 단순히 돈을 빌릴 수 있는 취지로 문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이승원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